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지속가능 발전 모델 확립 주력

시, 박람회 사후 활용 로드맵 구체화 연구용역...융복합 관광 거점 탐바꿈

도산 진모지구 공간 랜드마크로 존치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110여일 앞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행사 이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립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10일 여수시와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 성공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 '시민 주도'로,

시는 범시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손님맞이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전국 자매결연 도시를 순회하며 발로 뛰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으며, '꽃섬 가꾸기'와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 섬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지역민과 널리 공유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이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3정 실천운동'은 정겨운 미소, 정갈한 음식, 정직한 가격을 3대 목표로 삼아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여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880여명의 정예 자원봉사자 역시 통역, 관람객 안내, 행정 지원 등

현장 곳곳에 배치돼 박람회를 매끄럽게 이끌어 갈 실무적인 뒷줄 역할을 해낼 만반의 체비를 마쳤다.

무엇보다 여수시는 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박람회장을 융복합 관광 거점으로 영구 탐바꿈시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주행사장인 도산 진모지구에 들어서는 핵심 테마 공간과 야외 공연장 등은 철거되는 일회성 시설이 아니라, 행사 이후에도 전시와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존치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빛의 아일랜드'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화려한 야

간 경관과 체험형 콘텐츠가 융합된 독보적인 관광 자원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이같은 사후 활용 계획은 남해안 일대의 대규모 광역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폭발적인 파급력을 낳을 전망이다.

여수 도산과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연도교인 '알레브 브리지'가 2027년 완공되면 섬 박람회장은 천혜의해상드라이브코스출발점이 된다.

2021년 개통을 앞둔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원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무술목 복합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더해지며 여수를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의 절대적인 중심축으로 밀어 올릴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박람회는 글로벌 섬 정책을 주도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예정이다. 행사 기간 개최되는 '세계섬도시대회'는 참가국들이 모여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섬 개발을 논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구축되는 섬 맞춤형 통합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섬 관광의 패러다임을 '스쳐 가는 여행'에서 '머물며 영감을 얻는 여행'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시민과 하나 돼 준비한 섬 박람회가 여수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AI로 감정 표현”...화순군 ‘온마음’ 아트테라피 선포

운주사문화관서...이머시브랩 협약

미술·AI 기술로 전 연령 맞춤형 체험

화순군이 예술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감성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머시브랩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반 체험 콘텐츠인 '온마음(AI 아트테라피)'을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온마음'은 미술적 요소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스마트 테이블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을 거치면, AI가 이를 분석해 개인의 감성과 취향이 반영된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색채와 이미지 등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 콘텐츠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전 세대가



방문객이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온마음(AI아트테라피)을 체험하는 모습. <화순군 제공>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기기는 문화관 로비에 설치돼 있으며, 운영 시간 내 방문객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시범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반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단순 관람 중심이던 문화관을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복합 문

화공간'으로 기능을 점차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석 문화예술과장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유형의 감성 콘텐츠를 군민들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 연령층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운주사문화관만의 특색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풀뿌리공동체센터 '농촌공간 지원기관' 선정

재생 정책 실행 핵심 거점 도약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 정책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했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군 단위 전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과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낙점됐다.

농촌공간계획은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주거, 산업, 환경,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간 재편 전략이다.

이에 센터는 기초조사 및 공간 진단, 주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촌 협약 연계 구조 설

계,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간담회와 마을 단위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구체화하고, 사업 준공 이후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용진 공간재생과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며 "담양군이 일과 삶,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은 올해 김 양식 어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양환경정화선인 '청정고흥호'를 투입해 특별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김 양식 유실 폐어구 '집중 수거'

득량·나로도...해양 오염 선제 차단

고흥군은 올해 김 양식 어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상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청정 바다 환경 조성과 안전 조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득량도부터 나로도 해

안이다. 또한 잘게 부서진 페스티코프 부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으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양 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발생시킨 폐어구를 전량 수거하겠다는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군, 재가암환자 '체력 증진·정서 회복' 지원

郡보건의료원, 주 3회 맞춤형 운영

곡성군은 10일 "지역 내 재가암환자와 가족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체력 증진과 정서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보건의료원은 광주전남광역암생존자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내 재가암환자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인 프로그램인 맞춤형 운동 교실은 11월부터 7월3일까지 8주간 매주 3회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6월 참가자들의 기초 체력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평가를 마쳤으며, 향후 개별 상담과 사후 평가를 통해 건강 변화를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사진>



또한 오는 6월30일에는 '내 안의 불안 다스리기' 심리 상담과 이기 테라피를 만들기 등 원에 치료 활동을 병행해 암 치료 과정에서 지친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암 치료 이후 체력 저하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재가암환자들의 신체적 건강 회복은 물론 사회적 교류를 넓히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양시, 창업 실습 '달그락 청년공작소' 개소

공유오피스·주방 등 완비

외지 청년 주거 공간 지원

광양시가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류형 창업실습공간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주요 내빈과 교육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그락 청년공작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공간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라(GO 郷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모듈러 하우스 방식으로 지어진 연면적 140㎡ 규모의 공작소는 공유오피스 2실, 실습실 2실,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고루 갖췄다.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청년들

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생생형 청년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이곳에서는 '청년 창업 달그락 맵그락'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1기 교육생 10명은 기존 예비창업교육에서 창업 교육을 이수한 뒤, 이곳에서 실질적인 창업 실습을 진행하며 역량을 쌓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 생겨 기뻐 크다"며 "교육과 실습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밖에 시는 외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인 1실 형태의 주거 공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광양에 머물며 창업의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흥군, 재난 취약시설 78곳 '안전점검'

공사 현장·다중이용업소 등

장흥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을 비롯해 공장, 공동주택,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총 78곳이다.

특히 전남도 표본 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 3곳이 포함됐으며,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밀 진단을 벌이고 있다.

군은 분야별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철저한 사후 관리로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장흥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